

동아DAU:M

교육	학생성장 지원체계 구축
연구	미래대응 연구역량 확보
산학협력	L2M 가치 창출
대학경영	DAU네트워크 가치 창조
글로벌	글로벌 위상 및 브랜드 정립
DX	지역공유/협력 디지털 플랫폼 구현



동아는 지금

120번째 소식지

동아대학교

DONG-A UNIVERSITY since 1946



Dong-A University Newsletter Vol. 120

# 동아는 지금

- Issue Focus** 학기 주요 소식
- Hot News** 주요 행사·인물 동정
- Dong-A People** 동아인 인터뷰
- Happy Donation** 발전기금 소식



승학캠퍼스 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하단동)  
부민캠퍼스 4923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부민동 2가)  
구덕캠퍼스 49201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32(동대신동 3가)

www.donga.ac.kr

블로그 [blog.naver.com/donga\\_pr\\_bot](http://blog.naver.com/donga_pr_bot)  
페이스북 [facebook.com/dongauniv](https://facebook.com/dongauniv)  
인스타그램 [instagram.com/donga\\_univ](https://instagram.com/donga_univ)  
유튜브 [youtube.com/c/dongauniversity1946](https://youtube.com/c/dongauniversity1946)

# 동아는 지금

DONG-A UNIVERSITY NEWSLETTER  
2023 VOL. 120



## 03·14·32 ESSAY

- 03 연결의 의미를 되새기다
- 14 일렁이는 봄물결과의 만남
- 32 Through Our Heritage  
전통의 단편들을 꿰매다



## 06 ISSUE FOCUS

- 06 중장기 발전계획  
DAU VISION 2030 선포
- 10 비교과 교육으로  
다양한 사회변화와 교육수요에  
빠르게 대응하다



## 16 HOT NEWS

- 16 개교 76주년 기념 표창 행사 성황리 개최  
공로상·석당학술상·근속상 등 시상
- 17 최학유·신용해 동문  
'자랑스러운 동아인' 선정
- 18 '동아브랜드' 전초기지 'L2M Platform  
(랩 투 마켓 플랫폼) 기공식 개최
- 19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선정  
4년간 국비 100억 원 확보
- 20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취업지원 행사 개최
- 21 석당박물관 '2022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 우수관 선정
- 22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GKS)  
2023년 1학기 35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
- 23 동아대 교수들  
뛰어난 활약으로 장관상 등 수상
- 24 동아대 교수와 학생들  
눈부신 연구 성과 주목
- 25 대학원과 학부생  
각종 대회에서 상 휩쓸어



## 26 DONG-A PEOPLE

- 26 치열함을 거쳐 오는  
어떤 반가움을 말하다  
권명아 한국어문학과 교수
- 28 스크린에서 캠퍼스로  
장르적 변주를 시작하다  
최승현 음악학과 교수
- 30 열정으로 몰무질하고 실력으로 증명하다  
김태준, 이재근, 최재성 학생



## 34 HAPPY DONATION

- 34 발전기금 기부뉴스
- 39 발전기금 기부현황 / 후원의 집 소개
- 42 후원 신청서 / DONG-A SNS

## ESSAY

연결의 의미를 되새기다



## 멀어지지 않는, 잊히지 않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했던가요?  
꼭 만나지 않아도 진심을 표현할 방법은 많아 보였고  
견디다 보면 곧 일상을 회복할 것 같았지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불쑥 고개를 들었던 적, 다들 있을 거예요.  
'이대로도 괜찮지 않을까?'

### 동아대학교 소식지(통권 제120호)

발행일 2023년 3월  
발행인 이해우  
발행처 동아대학교 대외국제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하단동)  
T. 051)200-6042~3 F. 051)200-6015  
www.donga.ac.kr / fund.donga.ac.kr  
디자인 디자인대훈 051)898-0330

### 동아는 지금 제호 소개

동아대학교가 설립되기 10년 전 1937년 프랑스는 아르데코(art deco) 기를 맞고 있었다. 그 당시 프랑스를 대표하는 서체로 인정받은 「페노(Peignot)」는 1937년 파리 국제 박람회의 공식 서체로 지정된 오랜 역사의 서체로, 일정한 굵기 대신 획의 차이가 분명한 휴머니스트 산세리프에 가까운 서체이다. 직선과 곡선이 잘 어우러진 페노 서체의 특징을 한글에 접목해 「동아는 지금」의 오리지널 제호를 개발했다. 동아대학교의 오랜 역사를 담으면서도 현대적인 세련미를 녹여냈다.  
(제작: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김재홍)



## ‘다가움’은 사실 ‘함께함’ 옆에

너무 번거롭고 피곤하게 느껴져  
나의 다음도, 너와의 다음도 생각나지 않을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한 소중한 날들은  
자연스레 찾아온 것이 아니라  
힘든 시간을 버텨내고서야 온다는 걸

어느 날 만개한 꽃, 가벼워진 옷차림,  
차가운 음료수 잔에서 느끼곤 합니다.

나를 받쳐주는 이 든든함과 포근함, 즐거운 지금이 있는 이유는  
만나지 못한 시간에도 멈추지 않고 해온 노력 덕분입니다.



## 이제 반가움을 만끽해요

소중하게 대하는 법을 아는 것도 꾸준함이 빛은 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학령인구 감소에도 학생을 소중히 여기고 캠퍼스 안팎,  
있어야 할 자리에서 분주히 제 할 일을 해내는 동아대학교가 당신을 반깁니다.  
어서 와요, 늘 당신을 생각해왔어요.

ISSUE FOCUS

01

# 역사를 넘어, 미래로 도약하는 동아대 중장기 발전계획 'DAU VISION 2030' 선포

동아대학교는 지난 2022년 11월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DAU VISION 2030'을 선포했다. '역사를 넘어, 미래로 도약하는 동아대학교'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2030 국내 최고 프런티어 사학'을 목표로 발전전략 'ICONIC DAU'를 추진한다.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비전 선포식 모습

## 함께 듣는 100년 미래의 첫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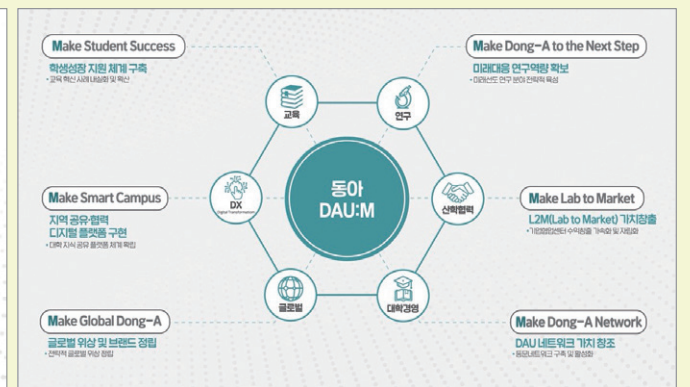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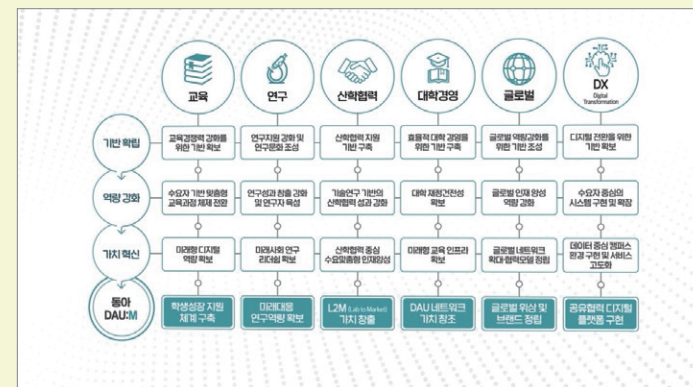
동아대는 주요 현안 구성원 공유회를 시작으로 학생·교원·직원 전체가 참여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 왔다. 2022년 4월 19일, 승학캠퍼스 경동홀에서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보고회에서는 구성원 인터뷰 및 대내외 환경 분석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된 키워드와 비전 수립 방향 등이 공유됐다. 이해우 총장은 중간보고회에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가 촉발한 환경 변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한 차원 높은 도약을 위한 첫 단계로 구성원이 공감하는 새로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아대는 같은 해 7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발전계획 수립 컨설팅 및 대내외 환경·경쟁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비전 수립 방향을 발표하고 영역별 실행과제 도출 결과 및 환류 체계 등을 공유했다.



## 동남권 명문 사학에서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동아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22년 하반기, 새로운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인 'DAU VISION 2030'을 선포했다. 그리고 역사와 전통의 지역 명문 사학이라는 위상을 공고히 하는 한편, 역사를 넘어 구체적 목표 실현을 통해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미래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역사를 넘어 미래로 도약하는 동아대학교(Beyond History, Make Future)' 라는 비전에 담았다.

또 구성원 공유회 등으로 취합된 결과를 기반으로 '2030 국내 최고 수준의 프런티어 사학'이라는 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핵심성과지표(KPI)를 통해 종합경쟁력을 진단, 현재 동아대 경쟁력 수준을 평가·측정할 기반 지표(6개)와 성과 지표(20개)를 설정했다. 이를 통해 인적, 재정적 역량부터 교육, 연구, 산학협력, 글로벌 등 중장기 발전계획의 주요 영역 별 성과를 개별적·심층적으로 측정해나갈 계획이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비전 선포 영상 인트로 / 비전 선포 의의를 설명 중인 이해우 총장 / '동아 DAU:M' 내용 설명 1, 2



지난 2022년 4월 송학캠퍼스 경동홀에서 열린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모습

### 동아대의 미래를 열 'ICONIC DAU'

목표 달성을 위해 대내외 환경분석, 구성원 의견수렴, 교육부 정책 등을 바탕으로 △Industry-Aligned(신산업 연계) △Convergence(융합) △On-Demand(수요 기반) △Network(지역 기여) △International(국제화) △Communication(소통)의 6대 발전전략인 'ICONIC DAU'를 수립했다.

아울러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 '대학경영', '글로벌', 'DX (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전환)', '동아DAU:M (다움)' 등 7개 발전영역을 중심으로 24대 발전과제와 35대 추진과제, 57개 실행과제를 구성했다. 단계별 과제의 세분화된 기획·구성을 통해 과제 운영 체계화를 확립하는 한편, 실행가능성을 높이고 구체성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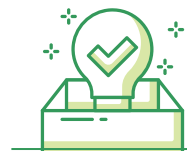
특히 기존 발전계획(QL2024+)의 글로벌 영역을 글로벌로 개편하고 'DX(Digital Transformation)'를 추가,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트렌드에 대응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했다. 또 동아대학교만의 발전계획 브랜딩과 차별화를 위해 '동아DAU:M'을 신설했다.

### '동아DAU:M' DAU 브랜드를 확립하다

동아대는 발전전략 추진을 위해 교육, 연구, 산학협력, 대학경영, 글로벌, DX 각 영역별로 △기반확립 과제(대학 본연 기능 수행에 필요한 기초기반 확립 및 중장기 성장 동력 과제) △역량강화 과제(강점 계승 및 대학의 근원적 기능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동력이 되는 과제) △가치혁신 과제(동아대 가치 혁신을 위한 첨단 트렌드 대응 및 미래 대학으로 변혁을 위한 과제) 등을 수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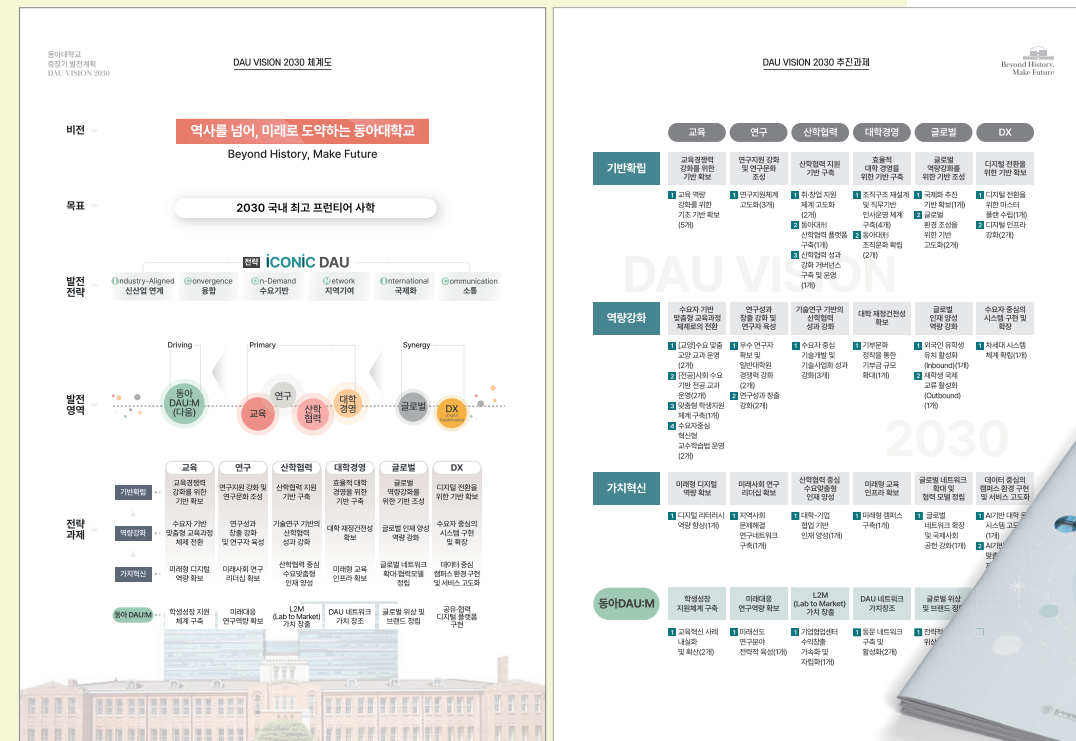
기반확립은 24개, 역량강화는 18개, 가치혁신은 7개 등 하위 실행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전략과제 중 하나인 '동아DAU:M'은 발전영역별 동아대만의 가치 창출을 위한 과제이자 목표 달성을 통해 비전을 실현, 동아대만의 고유한 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이다.

각 영역별로 동아대만의 학생 육성 모델, 연구 성과 사업화,



동아대가 추구하는  
가치의 차별화를 위한 6대 발전전략

## ICONIC DAU



DAU VISION 2030 체계도 및 추진과제

경영 및 지역혁신 모델 구축 등 앞선 교육부터 DX까지 6개의 전략과제를 실행함으로써 구현 가능하다. 동아DAU:M은 전략과제 단계적·통합적 추진으로 연계 될 궁극적인 결과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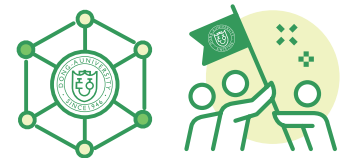
이 총장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동아대는 DAU VISION 2030 발전 전략을 통해 ‘역사와 전통의 지역 명문 사학’이라는 위상을 드높이고 미래 사회에 대응한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며 “이번 발전계획 선포가 ‘2030 국내 최고 프런티어 사립대학’ 동아대 100년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아대는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도 동남권 최고명문사학이라는 단단한 기반을 바탕으로 명문 사학 입지를 공고히 해왔다. 중장기 발전계획인 'DAU VISION 2030'은 동아대의 역사, 전통, 역량과의 시너지를 통해 명문 사학으로서 역할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더 불어 인재 육성과 경영까지 미래 대학의 청사진이 될 동아만의 브랜드를 굳건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

동아대의 브랜드화를 위한 과제

## 동아DAU:M

- 교육 학생성장 지원체계 구축
- 연구 미래대응 연구역량 확보
- 산학협력 L2M 가치 창출
- 대학경영 DAU네트워크 가치 창조
- 글로벌 글로벌 위상 및 브랜드 정립
- DX 지역공유/협력 디지털 플랫폼 구현



ISSUE FOCUS  
02

# 비교과 교육으로 다양한 사회변화와 교육수요에 빠르게 대응하다

대학은 이제 지식전수자로서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을 넘어서,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내적 역량을 성장시켜줄 책임이 있다. 동아대학교는 학생들이 전공 공부 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하고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 유연하고 실속 있는 역량 형성,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비교과 교육은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별도 편성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대학 교육 현장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교육 유형으로 특강, 봉사활동, 공모전, 멘토링·튜터링, 상담·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를 포괄한다. 동아대는 비교과 통합관리시스템(DECO)으로 수강, 수료, 만족도를 관리한다. 운영 방법과 수업 형태 및 시수의 유연성, 자율성이 높고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 특성 덕분에 학교와 학생 모두에게서 급변하는 교육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에 적합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비교과 교육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능력 향상, 고차원적 사고력 증진, 폭넓은 인간관계 형성, 문제해결력, 리더십 증진과 같은 스킬 향상에 도움이 된다. 동아대는 사회 및 교육 환경 변화에 발맞추고 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과 대학 비전을 검토해 ‘동아 6대 핵심역량’을 정의, 이를 기반으로 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동아 6대 핵심역량’은 △전문성 △인성 △창의 △도전 △글로벌 △소통이며, 이는 비교과 프로그램 설계 초기 단계의 판단 준거가 된다.



지난 2월 승학캠퍼스에서 열린 'DECO 활동 시상식' 모습

##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별도 프로그램(특강, 봉사활동, 공모전,  
멘토링·튜터링, 상담·컨설팅 등)

최대 프로그램 개설 664건 (2019학년도) | 누적 참여 인원 33,562명 (2020학년도)

### PROGRAM

- Career Design(진로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 Jump-up 기초학력강화 단계별 프로그램
- 동아스터디(멘토링 프로그램)

현재 동아대 비교과 프로그램은 특강과 멘토링, 공모전, 상담, 동아리, 봉사활동, 연수, 캠프 등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비교과 프로그램 주요 주관부서는 교수학습개발센터, 국제교류과, 진로개발센터, 학생상담센터, 취업지원실 등이며 주요 프로그램은 50여 개다. 매년 누적 참여 인원이 3만여 명(중복 포함)에 달할 정도로 활발한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진로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진로동아리 지원 프로그램인 'Career Design',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인 'Jump-up 기초학력강화 단계별 프로그램', '동아스터디' 등이다.

### DECO시스템으로 비교과 프로그램 체계적 관리

동아대 교육혁신원은 교내에서 운영하는 모든 비교과 프로그램을 한눈에 볼 수 있는 DECO 시스템을 지난 2018년 런칭했다. DECO시스템이란 '동아대학교 비교과 통합관리 및 핵심역량 진단 시스템(Dong-A Extra-curricular & COmpetency, 데코)'을 의미한다. DECO시스템은 △비교과 프로그램 개설·이수 신청 통합 관리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 이수를 통한 핵심역량 점수 누적·관리 △마일리지 적립 △동아핵심역량진단(D-CODA) 실시 및 수집 데이터 추적·관리 △사용자(학생) 및 (시스템)관리자 기반 성과분석 및 결과 제공 서비스 역할을 담당한다.



'Jump-up 전공멘토링' 동아리 활동 중인 학생들

“  
**DECO 시스템 도입 후  
 비교과 프로그램은  
 최대 규모로 개설 시 600건 이상,  
 최대 3만 명 참여 등  
 양적 성과를 이뤘다.**”

동아대에서 개설, 운영되는 대부분의 비교과 프로그램은 DECO시스템을 통해 개설 및 총괄 관리된다. 학생들은 D-CODA(동아핵심역량진단)에 참여해 자신의 역량 수준을 확인할 수 있고 비교과 활동 내역과 마일리지 적립, 핵심역량 포트폴리오 조회 등 비교과와 핵심역량 관련된 각종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DECO포인트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누적되는 실적 점수로 한 프로그램마다 최대 45시간 한도 내에서 적립된다. 6개월 이상 진행되는 장기 프로그램은 최대 72시간 인정된다. 프로그램 수료 후 만족도 조사까지 완료해야 적립되며 상위 적립자에게는 DECO장학금이 수여된다.

**부울경 지역 대학 최초로  
 비교과 교육 인증제도 도입, 고도화**

동아대는 DECO 시스템 도입 후 비교과 프로그램 최대 규모로 개설 시 600건 이상, 최대 3만 명 참여 등 양적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양적 팽창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다. 또 각종 대외평가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비교과 교육과정 선진화 및 지표 마련 방안도 절실했다.

뿐만 아니라 비교과 교육은 학생들의 소양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학생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그에 따른 학생 만족도 제고 및 동아대 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본래 목적 또한 면밀히 검토해야 했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혁신원은 전문 연구 인력을 투입해 부·울·경 지역 대학 최초로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도입했다. 교육혁신원은 지난해 10월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설명회를 열고 프로그램 운영 부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비교과 컨설팅'을 실시하기도 했다.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는 프로그램 운영 부서와 학과의 의견을 수렴하고 12월부터는 1단계 기본인증 시범평가를 실행,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이나 수정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2023학년도부터 본격 시행된다.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 자료 환류 등 전 단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과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 부서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방면의 평가 기준도 개발됐다. 따라서 프로그램 인증-평가제도는 계획(P), 실행(D), 평가와 개선(CA)이라는 3개의 틀 안에서 기본-우수-미인증 단계마다 다른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했다.



진로개발센터 진로동아리 활동

## DECO DONG-A EXTRA-CURRICULAR & COMPETENCY 비교과 통합관리 및 핵심역량 진단 시스템

개설 중인 비교과 프로그램 현황과 정보를 확인하고, 관심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동아대학교 비교과 프로그램 통합관리 시스템

DECO 주요기능

 비교과 프로그램 정보 조회 및 신청, 만족도조사 참여	 비교과 포인트 (DECO 포인트) 및 핵심역량 점수 등 관리
 D-CODA (동아핵심역량진단) 참여 및 결과 확인	 비교과 활동내역 관리, 참여후기 작성 및 홍보물 & NEWS 확인

기본인증 프로그램은 전체 비교과 프로그램 중 우수성이 입증된 프로그램이다. DECO 시스템 내 등록 정보를 활용해 7개 지표 중 5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DECO 시스템을 활용한 정량평가로 판단하며 수료자에게는 1시간당 0.5 DECO포인트가 지급된다. 기본인증 유효기간은 1년이며 해마다 3월 발표된다.

우수인증 프로그램은 기본인증을 획득한 프로그램 중에서 선별한 상위 5개 프로그램이다. 별도로 마련된 절차로 평가하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동시에 진행한다. 수료자에게는 DECO포인트를 2배로 적립, 우수인증마크가 삽입된 수료증을 발급해주며 운영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우수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해마다 5월 발표된다.

미인증 프로그램은 일정 기준 및 요건이 미충족된 프로그램이며 수료자에게 DECO포인트가 제공되지 않고 주관부서에 프로그램 개선을 요청한다.

동아대는 비교과 교육 관련 다양한 정책사항이나 개선점을 논의·의결하기 위해 '비교과 교육 선진화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자나 학생들의 의견을 가까이에서 청취하기 위해 '비교과 컨설팅', '비교과 수요요구 조사' 등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양질의 비교과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 제도, 인프라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영조 교육혁신원장은 “동아대는 해마다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와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며 “비교과 인증제도는 비교과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여 학생들이 더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누리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사회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 자료 환류와 성과 공유를 통해 동아대 학생 개개인이 역량을 잘 펼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SSAY

**걱정을 내려놓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가 점차 완화되면서 새 학기를 맞은 동아대 캠퍼스에도 즐거운 웃음소리가 가득해진 봄. 아무 걱정없이 봄의 향기를 들이마실 수 있는 날이 곧 오기만을 바라요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봄빛**

화창하고 선명한 낮에도, 시리도록 차분한 밤에도 기대와 설렘으로 박차오르는 우리의 마음과 꼭 닮은 흰 꽃망울. 등굣길에서 매일 마주하는 꽃처럼 더없이 찬란하게 빛나는 봄의 동아.



**우리의 밝은 진심으로**

언제나 지역 사회와 함께해 온 동아인들이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어울리기 위한 해외 봉사활동에 나섰다. 낯선 환경에서도 금세 사람들과 어울리며 박차오르는 따스한 마음.



**만남과 이별이 교차하는 공간**

아수룩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지만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경험과 여태 쌓아온 소중한 이야기들이 한데 묶여 만드는 새로운 설렘으로 나아가는 우리, 동아의 졸업생을 배웅해요.



공로상·석당학술상·근속상 등 시상

### 개교 76주년 기념 표창 행사 성황리 개최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개최된 '동아대학교 개교 제76주년 기념표창 행사' / (왼쪽부터) 이해우 총장, 석당학술상을 수상한 전미라 식품영양학과 교수 / 이해우 총장(가운데)과 모범직원상 수상자들



동아대학교 '개교 제76주년 기념표창 행사'가 지난해 10월 31일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교직원과 학교법인 관계자, 동문,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 총장은 이날 행사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 평가 지표가 반등하고 있는 것은 모두 구 성원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고생해주신 덕분이다"며 "동아대는 앞으로도 슬기롭고 평화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랩 투 마켓 플랫폼(L2M Platform)'이 현실화될 '동아브랜드'를 육성하는 등 진정한 산학협력형 대학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신정택(세운철강 회장) 총동문회장은 "오늘 미래를 향한 모교의 새로운 도약 의지를 확인했다"며 "동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교 발전은 곧 나의 발전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각자 위치에 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모교를 빛낸 동문에게 수여

하는 '자랑스러운 동아인상'은 최학유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조정위원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돌아갔다.

탁월한 연구업적으로 대학 발전에 이바지한 교원에게 시상하는 '석당학술상'은 전미라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수상했다.

전 교수는 기능성식품 분야에서 최근 5년간 책임저자로 SCI급 논문 21편을 발표했고, JCR 랭킹 상위 10% 논문 4편을 포함, 심사대상 연구실적물 10편의 평균 순위가 13.33%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냈다.

100여 편의 SCIE 논문 발표 및 미국혈액학회에서 대한민국 최초 국내 개발 신약의 효과 및 안정성을 발표(2012)하는 등 혈액종양내과 부문에서 우수한 연구업적과 임상 실적을 쌓은 김성현 의학과 내과학교실 교수와 지난 2011년부터 동아대 링크(LINC) 사업을 수행-총괄

지휘하며 2017년 LINC+에 이어 LINC 3.0까지

1~3단계 사업에 모두 선정되는 데 기여한 박준홍 기계공학과 교수는 공로상을 받았다.

학교의 미래를 빛낼 재학생에게 주어지는 '동아미래인재상'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2021년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활동 및 장려상 수상 등 대외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학교 위상을 높인 이희정 학생(고고미술사학과 3)이 선정됐다.

이 밖에도 김현수 경영정보학과 교수 등 6명의 교원과 정혜선 학생복지과장 등 7명은 30년 근속상을, 오세경 도시공학과 교수 등 17명의 교원과 장선희 교육혁신센터 팀장 등 11명의 직원은 20년 근속상을 받았다.

김정근(경리과) 등 8명에게 '모범직원상'이, 탁규만(교무과) 등 8명에게 '올해의 직원상'이 수여됐다.

최학유·신용해 동문

### 개교 76주년 기념 '자랑스러운 동아인' 선정

동아대는 개교 76주년 기념 '자랑스러운 동아인상' 수상자로 최학유 부산지방법검찰청 동부지청 형사조정위원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선정했다. 시상은 2022년 10월 31일 열린 동아대 '개교 76주년 기념 행사'에서 진행됐다.

동아대 법학과 학사와 석사, 박사 학위를 모두 수여받은 최학유 위원장은 지난 2007년까지 모교 인문학부 교수를 지낸 후 현재는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학교법인 창신대학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한 그는 청춘장학재단 이사를 맡아 장학재단 운영과 발전에 헌신하며 후학 양성과 지역사회에 기여해왔다. 1995년 설립, 동아대 교내외 장학금을 통틀어 가장 큰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청춘장학재단은 1999년부터 모교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급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1,222명의 학생과 교수에게 27억 800여만 원을 지원했다. 또 다른 수상자인 신용해 본부장은 동아대 법학과 87학번으로 1996년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교정행정 전문가로



(왼쪽부터) 최학유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조정위원장, 이해우 총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서 교정부부 보안정책단장, 광주지방교정청장, 서울구치소장, 안양교도소장 등 본부 및 교정행정 관련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특히 법무부 교정기획단TF 단장, 광주지방교정청 청장,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재임 시절 추진한 각종 정책과 교정행정 구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안정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등을 인정받아 정부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또 지난해 9월 1일에는 교정직렬 최고직위인 제10대 법무부 교정본부장으로 임명되는 등 학교의 위상을 높였다.

'교양학사 학위 과정' 등 호평

### '2022 교양교육 우수개선 대학' 선정

동아대가 '2022년 교양교육 우수개선 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양교육 우수개선 대학은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컨설팅 실시 대학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학부교육 핵심인 기초교양교육 정상화와 교육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진단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대학 교양교육 컨설팅 이후 개선 및 성과 등 종합적 내용을 검토해 선정된다.

동아대는 이번 종합평가에서 대학의 교양기초교육 개선 등을 위한 △교양교육 과정과 교과목 정비 △교양교육 전담조직 강화 △교양교육 정상화 △교양학사학위 과정 운영 등 높은 점수를 받아 상패와 지원금을 받았다.

특히 '융복합 교과목 개발'과 '리버럴아츠(Liberal Arts, 기초교양) 교육 과정'은 한국교양기초교육원으로부터 '동아대가 공들여 쌓아 올린 빛나는 성취로 대학 교양교육의 모범적인 사례'로 호평받았다.

동아대는 2018학년도 2학기 동아대 최초의 코티칭 과목 '거대한 전환'을 처음 개설한 이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하나로 리버럴아츠 전공을 도입했다. 16개의 코티칭(전공이 다른 2~4명의 교수가 매시간 함께 들



제3회 동아 우수교양 콘테스트 시상식 참석자들

어가 강의하고 토론하는 방식)·팀티칭(전공이 다른 2~4명의 교수가 회차별로 파트를 나눠 강의하는 방식) 교과목(48학점)을 리버럴아츠 융복합 교육과정으로 새로 개발했으며, 서로 다른 전공의 교수들이 함께 수업하는 방식이라 강의 현장에서 학제 간 융합이 실현되고 있다.

김진경 기초교양대학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미래형 교양교육 실현을 위해 융복합 교양교육을 강화하고 삶과 배움을 연결하는 교양교육 내실화를 통해 '도전하고 소통하는 창의인재상' 구현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브랜드’ 전초기지

‘L2M Platform(랩 투 마켓 플랫폼)’ 기공식 개최

동아대는 지난 2022년 9월 22일 ‘L2M(Lab to Market) Platform(랩 투 마켓 플랫폼)’ 신축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동아대 승학캠퍼스 L2M 플랫폼 신축공사 고압수소시험동 부지에서 열린 기공식에는 이 총장과 권태정 건설관리본부장, 김성재 산학협력단장 등 본부위원과 최정주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동아대 승학캠퍼스 산학관과 창업관 사이에 들어서게 될 (가칭)L2M Platform’은 동남권 유일 미국선급협회(ABS) 승인 시험기관인 동아대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를 주축으로 동아브랜드 연구 및 사업화를 위한 ‘교육연구시험동’과 ‘고압수소시험동’ 등 2개 동으로 구성된다.

건축면적은 2,550.48㎡(약 772평), 연면적은 4,600.96㎡(약 1,392평)로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이며, 시공사는 대지종합건설(주)가 선정됐다. 2023년 8월 준공 예정인 ‘L2M Platform’은 대학 자체 수익사업을 활성화해 다양한 동아브랜드를 개발하는 한편, 연구실에서 개발한 기술이 시장까지 진출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L2M(Lab to Market) Platform(랩 투 마켓 플랫폼)’ 기공식 참석자들

이 총장은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활성화와 동아브랜드 연구 및 사업화를 위한 연구시험동 신축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됨으로써 우리 대학뿐 아니라 지역 특화 연구센터 확립에도 중요한 기틀을 다졌다”며 “재정적인 측면과 아울러 동아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첫걸음이라는 의미도 있는 ‘L2M Platform’이 무사히 완공될 때까지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부산 지산학협력 브랜치 48호 지정

동아대 산학협력단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이하 밸브센터)가 부산 지산학협력 48호 브랜치로 지정, 지난해 12월 16일 ‘부산 지산학협력 48호 브랜치 개소식’이 열렸다.

부산 지산학 브랜치는 부산시 핵심정책목표인 ‘산학협력 혁신도시’ 구현을 위한 전진기지이자 지산학 협력 거점 모델이다. 동아대 밸브센터는 ‘협력 브랜치’로서 22대 유망기술별 산학협력 연구회 및 교류회 개최 등 네트워크 확산 기능을 하게 된다.

동아대 밸브센터는 2008년 산업부 지역혁신센터(RIC) 사업 선정, 2010년 한국인정기구(KOLAS) 국제공인 시험기관 신규 인정, 2019년 KOLAS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 범위 확대, 2021년 미국선급협회(ABS) 승인 시험기관 지정(기계역학 분야 국내 제1호 ABS 시험기관), 2022년 한국선급(KR) 승인 시험기관 재지정 등 국내외 주요 선급 인정 지정 시험기관으로 활약 중이다.

특히 초저온 밸브 분야에서 국내 최초 KOLAS 인정 기관이며 현재 기존 역학 시험 분야 외에 ‘수소밸브’ 분야 시험항목 추가 신청 등 인정 범위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부산 지산학협력 48호 브랜치 개소식’ 참석자들

지난해 4월엔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에 선정, ‘초고압가스 핵심기자재산업 기반구축’ 과제를 수행 중이며 11월엔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TNO)와 MOU를 체결, 액화수소 및 고압기계 수소 분야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네트워크도 구축했다.

이날 개소식에서 동아대 최정주 밸브센터장은 “15년 가까이 산학협력 사업을 수행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과 학내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테크노파크 원광해 지산학협력단장은 “브랜치 지정 이후 이를 중심으로 연계사업 발굴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선정

4년간 국비 100억 원 확보

동아대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 4년간 국비 100억 원가량을 확보했다.

‘초기창업패키지사업’은 창업 3년 이내 창업자를 발굴, 창업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과 지식재산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창업프로그램(주관기관별 특화 및 전문성을 고려해 시장진입, 초기 투자, 실증 검증 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아대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30개 내외의 초기 창업자를 발굴 및 육성할 예정이다.

특히 ‘바이오헬스’와 ‘미래에너지’, ‘스마트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특화 지원을 목표로 동아대학교기술지주(주),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주), 부산대학교기술지주(주), (주)시리즈벤처스, (주)티랩, 드림벤처스(유), (주)스마트파머 7



승학캠퍼스 전경

개 기관에서 매년 10억 원의 투자금을 확보,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수 인재 양성 위한

‘동아 DAU:M(다움)’ 인재양성 프로그램 추진

동아대가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졸업 후 더 빛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동아 DAU:M(다움)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동아 DAU:M(다움)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Develop your Ability Uniquely: Make a future(DAU:M)’의 약어로 학생들의 특출한 역량을 개발해 꿈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다.

각 학과 입학정원의 상위 10% 내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동아 DAU:M(다움)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학과 생활과 진로·취업지도, 전공역량 강화 등 대학생활에 필수적인 프로그램들을 연계, 입학부터 졸업 때까지 학생 진로에 맞는 커리어를 체계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대학에서 충분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해주고 성과를 관리해주는 방식이다.

연구실·실험실 등 전용 학습공간 배정, 멘토교수 지정으로 학년별 수준에 맞는 개인과제 수행, 취업 및 대학원 진학도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필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진로연계 과정 ‘ATG(Admission To Graduation) Care’도 운영된다.

‘동아 DAU:M(다움) 인재양성 프로그램’ 추진은 2023학년도 신입생 정시 모집에서 나타난 높은 경쟁률과 수시모집 등록률이 바탕이 됐다.



동아대 입학관리처가 2023년 신입생 대상으로 개최한 ‘All-Round 입학캠프’

신상문 입학관리처장은 “우수한 신입생 확보와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인재 양성프로그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커피차 운영 현장

###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취업지원 행사 개최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정평이 난 동아대가 올해도 각종 취업 지원 관련 행사를 활발히 개최했다.

2022년 11월 14일과 16일, 동아대는 승학캠퍼스와 부민캠퍼스에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취업지원실 주최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커피차를 운영, 이 총장이 직접 학생들에게 커피를 나눠주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 총장은 직접 학생들에게 커피와 아이스티 등 음료를 500잔 배부했으며, 취업에 관한 Q&A도 주고받았다.

행사를 주최한 신용택 학생취업지원처장(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소장)은 “학교가 항상 학생들의 곁에서 응원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 더 자긍심을 갖고 취업 준비에도 자신감을 얻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승범 총학생회장(경영학과 4)은 “학생들의 큰 관심사인 취업에 관해 총장님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라 뜻깊다”며 “학생들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취업지원실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취업에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앞선 11일에는 부민캠퍼스에서 '동문과 함께하는 취업전략 캠프'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동아대 경영대학(학장 김완중)이 주최하고, 경영대학과 학생취업지원처(처장 신용택) 공동주관, YBM한국도덕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캠프는 양재성 은산해운항공(주) 회장을 비롯해 기업과 언론사, 컨벤션, 공기업, 금융권 등에서 일하는 동아대 출신 동문이 대거 강연자로 참석해 유익한 취업 정보를 제공했다.

동아대는 지난해 5월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산지역 대학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현장 취업설명회를 개최, 31개에 이르는 대기업과 국가 및 공공기관, 중견기업 및 지역대표 기업 등이 대거 참여해 유익한 취업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2 K-MOVE 미국 해외취업사업' 2개 과정이 하반기 우수과정으로 추가 선정됐다. 동아대는 지난해에 이어 6개 운영 과정 모두 A등급을 받았으며, 4개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중 모든 과정을 A등급 받은 곳은 동아대가 유일하다.



'2022 동문과 경영대학이 함께하는 취업전략캠프' 참가자들

### 석당박물관 '2022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 우수관 선정

석당박물관이 지역 역사와 문화예술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성장하고 있다.

동아대 석당박물관(관장 김기수)이 '2022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 우수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12월 22일 한양대 박물관에서 열린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22년 국고지원사업 포럼 및 성과발표회'에서 우수 박물관 상패 전달식이 진행됐다.

동아대를 포함 전국 100개 대학박물관 중 17개 기관만 선정된 '2022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문화적 플랫폼으로서의 대학박물관'은 박물관 문화·연구자원을 활용한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교내 구성원 등 누구에게나 열린 박물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동아대 석당박물관은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협업, 전시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석당박물관은 앞서 문화예술 또는 박물관 분야로 진출을 꿈꾸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12명을 선발, 3인 1조로 팀을 이뤄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전시 실무 체험과 박물관 전문가 특강,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는 예



2022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 우수 상패



'2022 예비 큐레이터 양성 프로젝트'에 참가한 제1기 동아뮤즈

비 큐레이터 양성 프로젝트 '제1기 동아뮤즈(MUSE)' 활동을 성황리에 마치고 했다.

또 박물관 관람 문턱을 낮추고 상향식 동아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동아뮤즈(문화상품)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했다. 석당박물관 소장품을 모티브로 한 창의적인 굿즈 아이디어를 주제로 한 공모전에는 100여 건의 응모가 이어졌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10건의 아이디어가 선정, 앞으로 동아대 기념품 또는 시상품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 석당박물관 소장 '대방광불화엄경소 권88' 보물 지정

동아대 석당박물관(관장 김기수) 소장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 권88'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이 보물로 지정한 '대방광불화엄경소 권88'은 대각국사 의천이 송나라에 주문 제작해 고려 선종 4년인 1087년 고려사회에 들어온 '대방광불화엄경소' 총 120권 목판 중 권88에 해당하는 불경으로 줄여서 '화엄경(華嚴經)'이라고 부른다. 대방광화엄경소(大方廣華嚴經疏)는 중국 당나라 승려 징관(澄觀, 738~839)의 화엄경 주석본인 '화엄경소수연의초'에 송나라 승려 정원(淨源, 1011~1088)이 더욱 상세한 풀이를 더한 경전이다. 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중심사상을 담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경전이다.

'대방광불화엄경소 권88'에는 '정화병신오월경조(政和丙申五月敬造)'라는 조성 기록이 있어, 고려 1116년(예종 11) 5월에 판각한 경판으로 인출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소장처의 같은 계열 자료에서는 없는 기록이다. 또한 보존상태가 우수하고 국내에 전해 내려오는 같은 판본의 '대방광불



석당박물관 소장 '대방광불화엄경소 권88' 표지(왼쪽)와 내지

화엄경소 가운데 유일하게 알려진 권차로, 조선과 중국, 일본 당시 3국의 불교 교류 양상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1424년(세종 6)에 일본이 여러 차례 대장경판을 요구할 때 다른 경판들과 함께 일본에 하사해 이 간행본은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불교기록유산이기도 하다. 동아대 석당박물관은 '대방광불화엄경소 권88'을 지난해 12월 기획전시 '명작의 비밀'에서 최초로 공개했다.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GKS) 2023년 1학기 35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

2023학년도 1학기에 동아대 재학할 GKS 장학생이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에 신규 합격한 학부 장학생은 5개국 6명으로 2023학년도 GKS 학부 일반 대학전형에서는 부울경 지역 최다 인원이다. 이로써 올해 1학기에 동아대에 재학하게 될 GKS 장학생은 △한국어강좌 4명 △학사 5명 △석사 21명 △박사 5명 등 모두 18개국 35명이다. 이는 지난 2020학년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인원이다.

정부초청 장학제도인 GKS(Global Korea Scholarship)는 전 세계 우수 유학생 유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흔치 않은 아프리카, 남미 등 유학생 유치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캠퍼스 국제화를 향상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장학생들은 우리나라에서 수학 후 본인의 나라로 돌아가 대학교수, 정부기관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 동문 행사 잇따라 활기

## 동문들도 다방면에서 두각 나타내

동아대 총동문회를 비롯한 단과대학, 학과 동문회가 잇따라 활발히 행사를 개최하며 든든한 '동아줄' 25만 동문 파워가 견재함을 증명했다. 지난해 12월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 '총동문회 창립 73주년 정기총회 및 동아인의 밤' 행사엔 지역학과-직능을 총망라한 80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밖에도 의과대학 1기 동문회, 경영학과 총동문회, 건설시스템공학과(옛 토목공학과) 동문회, 식품영양학과 동문회, 대학원 영유아학과 총동문회, ROTC동문회 등이 행사를 갖고 발전기금 및 장학금을 전달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권경원(감바 오사카) 선수와 최영일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등을 배출한 동아대 축구부 동문회도 창립식을 열었다. 동문들도 다방면에서 두각을 보였다. 사회체육학과 91학번이자 학군단(ROTC) 33기 출신인 김용수 육군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 ROTC 동문 역



(왼쪽부터) 김용수 육군 준장 진급자 / 최주식 작가 / 임순옥 작가



제1회 동아대학교 축구부 동문회 창립식 참석자들

사상 여섯 번째(정종만·남영산·고현석·이종언·강부봉·김용수) 장군이 탄생했다. 최주식(국어국문학과 84학번)·임순옥(불어불문학과 90학번) 동문은 '국제신문 2023 신춘문예'에 당선됐고, 한국어문학과에 재학 중인 임정인 학생은 '2023 광남일보 신춘문예' 소설 부문에 당선됐다. 동아대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한국어문학과에 출강하고 있는 임희숙 소설가는 '2022년 제22회 부산작가상' 수상자로 선정됐고, 문예창작학과 학사와 석사를 졸업하고 한국어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김지훈 동문은 제9회 김문홍회곡상을 받았다. 신문방송학과(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김태선 동문은 삼성카드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이노성 동문은 국제신문 편집국장에 선출됐다.



(왼쪽부터) 젠다어펙트연구소 연구진 / 손현진 의학과 교수 / 강영조 조경학과 교수 / 김재현 고고미술학과 교수

## 동아대 교수들 뛰어난 활약으로 장관상 등 수상

동아대 교수들이 각자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잇따른 수상으로 학교 명예를 드높였다. 권명아 한국어문학과 교수(젠다어펙트연구소장)가 '2022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에 선정,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국내 유일의 정동(情動, affect) 연구 거점인 젠다어펙트연구소는 정동이론으로 주체와 소수자, 젠더 등을 연구한다. 연구소가 발간한 『약속과 예측: 연결성과 인문의 미래』는 '2021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됐다. 이동규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 소장)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 교수는 반복적인 재난사고에서 포착되는 구조적인 사회문제 진단과 연구기법 개발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정책자문 및 소방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예측시스템을 개발해 소방청장 표창도 수상, 국가재난관리체계 양대 기관에서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다. 손현진 의학과 교수는 부산지역 감염병 담당자 교육으로 국가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해 국민생명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손 교수는 질병관리청 감염전문위원회 위원직 등을 역임하고 현재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직을 맡고 있다. 강종관 바이오헬스융합연구소 교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습득한 첨단기술을 복지·보건·의료분야에 도입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 '2022 취약노인 보호 유공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강영조 조경학과 교수팀이 '영도 근대역사 흔적지도-영도 100년의 흔적을 걷다' 사업으로 UN해비타트 2022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했다. 강 교수 연구팀은 꾸준히 '영도 근대역사 흔적길 조성사업', '해설사와 함께하는 영도근대역사 100년 흔적길 투어' 등의 결과물을 내놓았다. 조일상 현대미술학과 명예교수는 지역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관(寶冠)문화훈장 수훈자로 선정됐다. 조 교수는 현재도 전국 각지에서 개인전을 열고 경남 진주전통공예 비엔날레 예술감독직을 맡는 등 문화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안희배 동아대병원장은 부산시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안 병원장과 동아대 병원 코로나 중증 응급진료센터는 부산의 코로나 중증환자를 최다수용·치료하며 지역병원 발전과 보건서비스 향상에 기여해왔다. 백재파 기초교양대학 교수가 '부산시 한글날 경축식 행사'에서 한글 연구 사업과 한국어 발전에 기여해 부산광역시 표창을 받았다. 백 교수는 2022년 부산일보 칼럼니스트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신진 칼럼니스트로 정기 연재 활동도 하고 있다. 이종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2회 한국법학고교수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6월 출간한 『일제강점기의 부정의 법제와 식민지 조선의 사회상』으로 일제강점기의 법제를 통해 조선의 전반적인 사회상을 파악하는 데 기여한 학술적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소현숙 젠다어펙트연구소 소속 교수가 『이혼법정에 선 식민지 조선 여성들』로 '제3회 이화-현우 여성과 평화 학술상'을 수상했다. 이 저술에서 소 교수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일제강점기 조선의 여성이라는 주제와 근대적 이혼제도 도입 이후의 실상을 조명했다. 김재현 고고미술학과 교수는 신석기부터 조선시대에 걸친 고인골(古人骨) 자료 474점을 문화재연구원에 연구용으로 기증, 국립문화재연구원 감사패를 받았다. 라광현 경찰·소방학과 교수는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평가방안 개발, 경찰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장 및 부산 중부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상했다. 임소연 기초교양대학 교수가 과학 안에 내재한 편견을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분석한 내용을 담은 저서 『신비롭지 않은 여자들』은 2022 서점인이 뽑은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다. 오숙희 한국어문학과 교수는 KNN 라디오 특집 4부작 '소리로 보는 박물관'을 연출해 배리어프리 콘텐츠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이달의 PD상'과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했다.

## 동아대 교수와 학생들이 눈부신 연구 성과 주목



(왼쪽부터) 손종우 화학과 교수 / 김경화 건강관리학과 교수 / 조연수 화학공학과 학생

동아대 교수와 학생들이 눈부신 연구 성과로 주목받았다.

한세혁 행정학과 교수가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 보호 공정성 증강모델'을 개발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확대가속하는 환경변화 속에 개발된 한 교수의 솔루션은 소비자후생, 거래 적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한 교수는 정책마케팅 전략 수립·고도화를 위해 공정성 증강 모델의 성능을 개선, 소비자 보호의 성격 및 보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손종우 화학과 교수는 국제적 학술 전문 출판사 티메(Thieme)가 선정한

2023 티메 케미스트리 저널 어워드(Thieme Chemistry Journals Award) 수상자로 선정됐다. 촉매반응 및 유기합성 분야의 전도유망한 소장 학자들에게 수여되는 수여되는 상으로, 올해 한국인 수상자는 손 교수가 유일하다. 손 교수는 지난해 BRIC(생물학연구정보센터)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한빛사)'로 선정된 바 있다.

김경화 건강관리학과 4단계 두뇌한국(BK21 Four) 교육연구단 소속 교수 연구팀이 진단치료학 분야의 권위자인 쉐라노스틱스(Theranostics)에 교신저자로 논문을 게재했다. 경희대학교 배현수 한의과대학 교수 연구팀이 공동 교신저자로 등재됐다. 두 연구팀의 논문은 T세포의 치매 치료 기전을 규명, 알츠하이머성 치매 예방과 치료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성호 건축학과 교수는 조달청이 전국 규모로 실시한 경매하고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 건축설계공모에 당선됐다. 특히 학생들과 함께 참여, 동아대 건축학과의 우수한 교육 체계를 과시했다는 심사평으로 학과의 역량을 증명해 보였다. 이 교수는 프랑스공인건축사(D.P.L.G.)이자 한국건축가협회 소속 건축가로 2017년 문화체육부관광부장관상을, 2016년 올해의 건축가상을 수상하는 등 굵직한 수상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조연수 화학공학과 4학년 학생이 SCI급 학술지인 영국 왕립화학회 연구지(RSC Advances) 10월호, 미국화학회 연구지(ASC Omega) 11월호에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했다. 교신저자로는 강효 화학공학과 교수가 등재됐다. 조연수 학생이 논문에서 제시한 '이온성 액체구조와 '온도 감응성 성질의 상관관계는 탄소중립이 전지구적 과제로 꼽히는 오늘날 친환경 산업 소재는 물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배터리, 디스플레이 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동아대 교수들 전문성 인정받으며 활발한 대외활동 펼쳐

동아대 교수들이 각자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대외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남찬섭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으로 선임됐다. 남 교수는 복지국가사회복지장애인복지를 연구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한국사회복지교육 협의회장, 대통령소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직을 역임했다.

한성호 의학과 교수는 대한가정의학회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최근 열린 대한가정의학회 정기 평의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제35대 회장에 선출된 한 교수의 임기는 오는 2024년 1월부터 2년이며, 총회 의장과 학술대회 등을 총괄하게 된다.

김병권 의학과 교수는 부산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으로 임명됐다. 동아대학교병원 부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예방관리센터장, 부산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장직도 겸임하고 있는 김 교수는 다양한 시각에서 부산의 건강문제를 분석연구하고 정책을 개발, 제안해 부산 공공보건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홍영습 의학과 교수는 대한예방의학회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대한예방의학회는 국민 질병 예방 및 관리, 보건으로 및 환경보건정책 등을 연구하는 학술단체다. 부산광역시 환경보건센터장 직을 겸하고 있는 홍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학회 구성원들이 전문가로서 역할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담당한다.



(왼쪽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남찬섭 사회복지학과 교수 / 한성호 의학과 교수 / 김병권 의학과 교수 / 홍영습 의학과 교수

## 대학원생과 학부생 각종 대회에서 상 휩쓸어

동아대 대학원생과 학부생들이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쓸고 미래를 이끌 우수 인재로 선정됐다.

윤정현 건강과학과 박사과정생이 제18회 부산미래과학자상 이학부문 박사과정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는 해양 자원인 모자반을 효과적 치매 치료제 후보군으로 선별, SCI급 논문 9편을 작성하며 촉망받는 차세대 과학인재로 인정받았다.

박나영 중개의학과 박사과정생은 향후 수행할 루게릭병 신규 치료법 개발 연구의 파급력과 잠재력을 인정받아 청영회귀질환연구재단 인재양성 사업에 선정됐다.

정임주 의상섬유학과 박사과정생은 '4D 프린팅 메타구조체 기반 헬스케어 스마트 의류용 소프트 액츄에이터 기초연구실'과 협동해 발표한 논문으로 2022 한국섬유공학회 학문후속세대 논문상을 수상했다.

김도영 미래에너지공학전공 석사과정생이 포스코인터내셔널 산학장학생으로 선발됐다. 김 석사과정생은 지층 내부에 이산화탄소 주입 시 주입공 이산화탄소 누출 위험성 평가 연구 실적을 통해 자원개발 분야 우수인력으로 인정받았다.

윤보람·박진환 화학공학과 BK-21 FOUR 교육연구단 소속 대학원생이 각각 소듐이온배터리의 안정적 용량 연구, 원자-경제성이 높은 친환경 인-질소 결합 형성 반응 연구로 대한화학회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

남택관·최진영·김정수 컴퓨터공학과 학생과 임성택·김원아 시학과 학생이 다해상도 지도 기반 해상교통 혼잡도 실시간 예측 서비스 개발로 조선해양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활용경진대회에서 부산광역시장상 훈격인 대상을 수상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들은 2022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 대회에서 호평을 들으며 대거 수상했다. '패밀리가 뒀다'팀은 지역대회 최우수상으로 전국대회 진출, '뽕순이'팀과 '애정결핍'팀은 부산-경남 지역대회 입선, 'Thisabled'팀은 코샬챌린저상을 수상했다.

'제10회 산업통상자원부 공공데이터 활용 BI 공모전'에서도 동아대 학생들이 대거 수상했다. 컴퓨터공학과-AI학과-전기공학과 학부생과 대학원생 5팀은 '빅데이터 분석' 대상, '아이디어 기획' 최우수상,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우수상을 수상 우수한 기량을 선보였다.

동아대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제2회 한국트라이볼로지학회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 출전,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또한 '2022년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학술대회 최우수 논문상도 수상했다.

동아대학교 LINC 3.0 사업단 지원 창업동아리 CCZ 팀이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 복합 탈취 살균기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윤정현 건강과학과 박사과정생(가운데) / 최현지 음악학과 학생 / '2022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에서 수상한 동아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들

패션디자인과 학생들의 활약 또한 돋보였다. 'ESG 가치 실현의 패션 액티비즘'을 주제로 열린 '한국의류산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패션디자인과 4학년 학생팀과 박예은 학생이 각각 포스터 부문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패션 트렌드와 산업 확장'을 주제로 한 '2022 한국의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도 포스터 부문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 '진주실크디자인경진대회'에서는 김정인 학생이 최우수상을, 양윤정 학생이 장려상을 수상했고 이재영 학생은 제29회 부산패션디자인경진대회에서 브랜드상을 수상했다.

건축학과도 우수한 학술 활동 성적을 뽐냈다. 우선 '대한건축학회 부울경지회 학술발표대회'에서는 학부생과 석사과정생들이 건축계획 최우수 논문 발표상, 학부 건축설계 최우수상, 학부 건축설계 우수 논문 발표상을 수상했다. 대한건축회 부울·경지회는 전국 지회 중 최대 규모다. (재)부산시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 도시재생 프로그램 '청년도시재생사 청년캠프톤' 대회에도 4년 연속 참석, '아담과 이브'팀이 하단 에덴공원 발전안 작품으로 은상을 수상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최호준(석당인재학부) 동아대 제117 ROTC 사관후보생은 '제12회 전국 대학생 안보·국방 논문 공모전'에서 사이버 예비군 창성을 위한 예비군법 개정 방향 논문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 치열함을 거쳐 오는 어떤 반가움을 말하다

### 권명아 교수

한국어문학과(젠더·어펙트연구소장)

젠더·어펙트 연구소가 이룩한 성과와 역할이 돋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연구원 선생님들과 아프콤 멤버들의 헌신적인 노력, 전신인 대안연구모임 아프콤에서부터 10년 이상 쌓아온 연구 성과 덕분에 연구소가 동아대학교의 학문적 자산이자 상징이 됐고 세계적 연구의 산실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학술 인력 재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왕성한 학술 활동을 하시는데, 부담감을 느끼지는 않으시나요?

연구자로서 할 일을 하는 거지만 공부가 즐거워서 부담감은 없어요. 오히려 능력 있는 우리 학생들이 인정받을 기회가 적고 경험의 반경이 한정적인 게 아쉬워서 10년 이상 일본 학술 교류를 진행해왔어요. 외국인으로서 발표하고 인정받으면서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능력이 몰라보게 향상돼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어요.

동아대에 15년간 재직하셨어요. 지금 돌아보셨을 때 '동아대학교'는 어떤 파트너였나요?

사실 동아대의 정의는 추상적이예요. 우리 학생들과의 관계성으로 말해보자면, 학과 생활에 활발히 참여하고 열정적인 학생들이 부산으로 이주해온 저와 금세 가족 같은 관계가 됐죠. 힘든 일이 있어도 제게 '임파워링(Empowering)의 원천'이 돼 주는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행 중인 연구와 연결된 실천의 영역이 있다면?

이제 '연결의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고립과 단절에서 상호의존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전부터 '이주민과 함께', '부산성폭력상담소' 등의 단체와 소수자, 차별 이슈로 협업해왔죠. 저는 저를 하단 사람, '하다녀'라고 불러요. 동아대와 서부산을 이어줄 연결 코드를 찾다가 (주)덕화푸드의 협조로 이주·여성노동자 구술 조사를 하고 학생 인턴을 파견했어요. 지금 (주)덕화푸드는 인문학적 브랜딩·마케팅을 하고 졸업생들은 이곳에 취직했어요. 성공한 원-원 모델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해마다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는 것도 새로운 경험일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첨단 이론과 학문을 배운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는 동시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면 힘들기도 해요. 학생들의 변화도 많이 느끼죠. 이제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전에 젠더, 페미니즘, 정동(affects)\*에 관해 미리 찾아보고, 흥미로워하거든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과 자신의 역량을 다변화된 시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정동(affects): 다양한 사회적 맥락과 충위를 가진 존재가 충돌하며 발생한 영향, 정서 등등.

스스로 좋은 교수라는 망상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인간은 누구나 판단에 한계가 있어요. 제 직책이 가진 권력이 제 판단과 무관할 수 없지요.

늘 강의 레퍼런스를 변경·업그레이드하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피드백을 꼭 반영합니다. 제 판단 준거는 학생들의 반응인 거죠.

혹시 스스로 소진되지 않게 재충전하는 방법이 있다면 비결은 무엇인가요?

방학 때 배우는 입장이 되어 보려고 합니다. 동아시아의 자료를 폭넓게 공부하고 외국 대학, 유학생들과 더 잘 소통하고 싶어서 일본어와 중국어를 꾸준히 공부하고 있어요. 발음 연습하느라 쓰지 않던 근육을 쓰다 보면 힘들어도 재미있어요.

정동 연구란 끝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연구자로서 바라는 미래의 모습은 어떤 건가요?

나이가 들면 그때 할 수 있는 공부, 새롭게 생기는 문제나 달리 보이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인생의 시절마다 보이는 것을 공부하고 마지막까지 공부하고 글 쓰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구성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학생들이 교류하며 자연스럽게 가지는 무형의 힘, 연결성이 있어요. 결속, 자발성, 가치 부여 같은 것들이 역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역사와 전통, 사람의 부대낌에서 생기죠. 늘 위기가 찾아오는 시대지만 서로 북돋아 주고 동아인의 힘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 선정

동아대학교 젠더·어펙트 연구소의 '연결신체 이론과 젠더·어펙트 연구'가 '2022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으로 선정됐다. 상반기에 세 번째 총서 출간을 앞둔 권명아 젠더·어펙트연구소장 (한국어문학과 교수)이 공유한 연결의 장을 넘겨본다.

# Kwon Myung Ah

# 스크린에서 캠퍼스로 장르적 변주를 시작하다

최승현 교수

음악학과(실용음악 전공)

학교에서의 러브콜이 처음은 아닐 것 같은데, 현직 '음악감독'으로서 동아대학교 음악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영화음악 분야는 실용음악과 클래식의 접점이 많은 분야입니다. 특히 동아대 음악학과는 두 분야의 다양한 전공이 공존하는, 규모가 큰 학과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예요. 세계적인 실력의 교수진과 우수하고 사랑스러운 학생들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자 강점이구요.

영화음악감독,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십대 시절 기타를 취미로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음악가가 장래희망이 됐어요. 당시는 막연히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 정도였고, 누군가 물어보면 영화음악가가 되겠다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다 제대 후 우연한 기회에 광고와 영화음악을 제작하시던 교회 지휘자님 회사에 취직해서 광고 음악 분야에 먼저 입문했고 이후 친구를 통해 음악감독님을 소개받아 영화음악 쪽으로 영역을 넓히게 되었죠.

교회 지휘자님과 친구 분 덕분에 우리가 음악감독 '최승현'을 만날 수 있었군요.

사실 애초에 영화음악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공으로 꽤 알려진 미국 몇몇 음악대학에 합격하는 등 유학을 준비했었어요.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결국 가지 못했죠. 만약 그때 계획대로 유학을 갔더라면 얼마 안 돼 IMF 때문에 학업

을 중단했거나 기타연주자 혹은 아예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첫 유학은 무산 됐지만 오히려 국내에서 영화음악에 대한 경험들을 쌓을 기회를 얻은 셈이었네요. 그리고 뉴욕대 스테인하트\*에서도 영화음악 작곡을 전공하셨고요.

한국에서 활동하다가 간 거라 좀 늦은 나이에 대학원으로 진학했어요. 공부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제 이름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았죠.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려 하지 않거나 '세-웅-휴-운' 등 아주 신중하게 발음하더라고요(ㅎ). 결국 'Shawn'이라는 영어 이름으로 타협하고 나서는 신기하리만치 모든 학생들이 저를 친근하게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졸업장에는 한국 이름을 그대로 썼지만, 교수님과 친구들은 여전히 절 'Shawn'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뉴욕대 스테인하트 음악 공연 예술 학교(NYU Steinhardt):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음악학교로 특히 영화음악작곡 전공은 석사 학위를 수여하는 미국 내에서 도 거의 유일한 학교.

2022년 9월부터 동아대 강단에 서셨어요. 작곡가에서 교수로, 직업적 장르 전환에 대한 소감은 어떠세요?

오랜 시간 대학에서 강의를 해왔어도 전임교수 경험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책임감을 좀 더 많이 느끼는 한편, 학교에서의 시간이 많아지

는 만큼 학생들과 더욱 친밀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설레기도 해요. 실제로 지난 가을 학기를 함께 했던 실용음악학과 4학년 학생들의 졸업 연주회를 보는데, 마치 오랜 시간을 함께한 제자들이 졸업하는 것처럼 가슴이 뭉클했어요.

작업해오던 작품들뿐만 아니라 제작 참여가 결정된 작품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수와 영화음악 작업 병행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창작을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 모든 작품마다 혼을 갈아 넣는 심정으로 임했기 때문에, 임용 전에 제작에 들어간 작품들만 끝내면 이후로는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전 10대부터 30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실패를 겪어봤어요. 저의 경험 자체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응원이 되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향한 교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동아대 구성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지난 학기 동아대에서의 모든 순간이 감동이었어요. 앞으로의 모든 순간도 학생들을 더욱 사랑하고 응원하며 동아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화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의 작곡가

영화 <올드보이>와 <친절한 금자씨>의 작곡가로 참여했던 최승현 음악감독이 동아대학교 강단에 섰다.

스릴러와 액션, 코미디, 멜로 등 40여 편에 이르는 영화음악과 광고, 게임 음악까지 영상의 모든 장르를 넘나들었던 그가, 이제 자신의 인생 장르를 바꾸려 한다.



Choi Seung Hyun

## 열정으로 풀무질하고 실력으로 증명하다

신소재공학과

김태준(18학번), 이재근(16학번), 최재성(18학번) 학생

**‘신소재공학과’라고 하면 미래 기술의 경쟁력과 가능성 그 자체처럼 느껴집니다. 학과를 선택한 계기가 있나요?**

**김태준** 신소재가 매력적이라 지원했어요. 앞으로 어떤 걸 또 배울 수 있을지 기대돼요.

**이재근** 포스코에 견학을 다녀오고 나서 금속과 재료 공정에 관심이 생겨서 선택했습니다.

**최재성** 부모님의 전공, 직업에 받은 영향도 있고, 제 운을 시험해보려는 마음도 있었어요.

**신소재공학과**의 스틸챌린지 준비 동아리, ‘헤파이스토스’는 어떤 동아리인지 소개해주세요.

**이재근** 스틸챌린지를 준비하기 위해 만든 동아리예요. 금속, 기계를 다루는 신의 이름을 따왔어요.

**김태준** 사용하는 프로그램 활용 강의는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배우고, 대회에 관련된 내용은 헤파이스토스 부원 학생들끼리 공부하고 모의시험 피드백해 줍니다.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며 실력을 키울 수 있어요.

**최재성** 동아리 안에서 선의의 경쟁, 격려 덕분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태 축적된 대회 데이터베이스가 우리의 경쟁력이 됐어요.

**이재근** 후배들이 우리를 보고 성장하면, 우리는 후배들을 보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번 스틸챌린지 대회에 출전하고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최재성** 포스코 모의대회에서 예상보다 낮은 성적을 받았지만 동아리에서 쌓은 실력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제17회 스틸챌린지 대회에 참여하는 동안은 완전히 자신감을 회복했죠.

**김태준** 2등과 큰 점수 차를 내면서 저희가 1등이 됐어요. 하지만 대회 본부가 저희가 다른 팀이 놓친 부분을 해결하고 초 단위로 정밀한 풀이를 한 걸 매크로 사용으로 보고 전체 실격 처리했습니다.

**이재근** 큰 점수 차로 1등이 돼서, 그리고 결과가 번복돼서 두 번 놀랐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한 달간 다들 백방으로 알아보고, 동아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캡처했던 자료를 모아 저희가 정당하게 참여했다는 걸 입증했어요.

**최재성** 처음에는 주최기관에 반론을 제기하는 걸 권하지 않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번엔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영어 실력도 늘었고요.

**김태준** 저는 첫 출전이라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아리 친구들과 교수님의 응원 덕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최종 결과 정정까지 해낼 수 있었어요.

**이재근** 맞아요. 불가능은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다방면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군요. 마지막으로 동아대학교 구성원들과도 공유하고 싶은 경험이 있을까요?**

**이재근** 대회를 마무리하고 나서 여행을 다녀왔더니 복잡한 마음과 불안, 부담감이 사라졌어요. 앞으로 제가 신경써야 할 것만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실패는 경험, 성공은 경력이라고 하잖아요? 하면 된다는 걸 경험했으니까 앞으로도 망설이지 않고 도전하려고 해요. 후회하더라도 어떤 일을 해본 다음 하는 후회로 경험과 판단을 얻을 수 있어요.

**김태준** 저는 4학년이 되면서 학부연구생이 됐고 2월부터 단기로 반도체 수업을 들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자산을 계속 만들어두고 싶어요. 2023년엔 헤파이스토스 부회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받았던 긍정적인 에너지를 다른 회원들에게도 나눠주고 싶고, 자신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말고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최재성** 제게는 4월에 열리는 ‘스틸챌린지 그랜드 파이널’이 남아있습니다. 잠시 스스로를 채워주고 기억에 남을 만한 휴식 시간을 가져보고요. 잠시 쉬더라도 금방 공부했던 흐름을 되찾을 정도로 헤파이스토스에서 공부한 내용이 제 안에 잘 남아 있어서 괜찮아요. 무엇보다도 한국인 최초로 스틸챌린지 세계대회 우승을 하고 싶어서 대회가 굉장히 기다려지네요.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 다양한 경험이 사람의 효율을 높여주는 것 같아요.



**최재성** | 대상 수상  
신소재공학과 18학번

**김태준** | 금상 수상  
신소재공학과 18학번

**이재근** | 금상 수상  
신소재공학과 16학번

### <스틸챌린지>의 ‘헤파이스토스’들

신소재공학과 학생들이 제17회 스틸챌린지에서 모든 상을 석권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대회 준비 동아리 ‘헤파이스토스’ 이름에 걸맞게 연마한 실력과 뜨거운 유대감으로 함께 올랐던 여정을 함께 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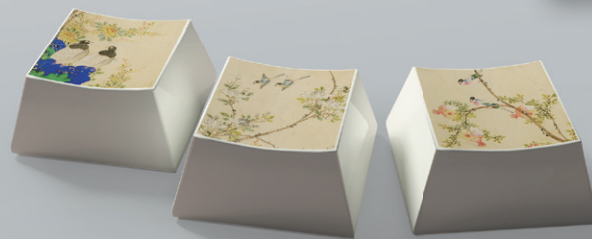
# THROUGH OUR HERITAGE

## 전통의 단편들을 꿰매다

지금의 동아를 이루어낸 이야기,  
차곡차곡 쌓아온 과거의 조각을  
다양한 포맷으로 재구성해  
모두가 향유할 수 있게 했다.  
동아만의 브로슈어와  
공모전 수상작을 소개한다.



화조화 전통  
여권 케이스&네임택  
(공하영 학생 작)



화조화 포인트 키캡  
(김연경 학생 작)



말머리장식 뿔잔 인센스 홀더  
(길태혁 학생 작)



석당박물관 리무버블 스티커  
(박소정 학생 작)

### 동아인의, 동아인을 위한, 동아인에 의한 매거진 <동아는 지금> & 브로슈어

동아인이 소중하게 가꿔온 동아대의 전통과 비전을  
요모조모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소식지, '동아는 지  
금'과 '브로슈어'. 모두에게 꼭 알리고 싶은 자랑스러  
운 소식과 솔직한 인터뷰, 단단하게 이어진 인연을  
담아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감각적인 디자인과 알  
찬 내용으로 꾸며진 소식지와 브로슈어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동아대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오래된 이야기 <동아굿즈 디자인 수상작>

멀고 먼 시간을 우리의 일상에 다채롭게 스며들게 할  
동아굿즈. 동아대 학생들이 석당박물관 소장품을 재  
치 있게 재해석해 꼭 사용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상  
품을 구상해 응모했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정교한 여권 케이스, 감성적인 인센스 홀더,  
범용성 높은 리무버블 스티커와 포인트 키캡은 과거  
와 현재를 이어주는 동시에 석당박물관에 관한 호기  
심을 불러일으킨다.

DONATION NEWS



### 엄기섭 한진물산 회장, 모교 발전기금 10억 원 쾌척

엄기섭 한진물산(주) 회장이 학교 발전기금 10억 원을 쾌척했다. 동아대 화학과 출신으로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도 받은 엄 회장이 모교에 기부한 금액은 현재까지 12억 원이 넘는다.

한편 동아대는 엄 회장이 이번에 기부한 발전기금 10억 원을 '가칭'엄기섭 장학기금'으로 조성, 해마다 엄 회장 이름으로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엄 회장은 "봉사와 기부는 내게 미소를 안겨 준다. '신뢰'와 '도전정신'을 중요시하는 인생철학이 대학 시절 형성됐고 지금의 내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오래전 학교를 졸업하고도 이만저만 인연으로 끊임없이 모교에 관심을 가져왔다. 안주하지 않고 더 좋은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길 끝없이 기대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1975년 설립된 한진물산(주)은 연매출 200억 원 넘게 달성한 공구 유통 1세대 기업으로, 국내 업계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강소기업이다. 엄 대표



(왼쪽부터) 엄기섭 한진물산(주) 회장, 이해우 총장

는 사회공헌에도 힘쓰며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 소사이어티(고액기부자 클럽) 39호로 가입하기도 했고 은강장학회 이사장을 맡아 지금까지 50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 신정택 총동문회장(세운철강 회장), 모교 발전기금 2억 원 쾌척

신정택 세운철강(주) 회장(동아대 총동문회장)이 학교 발전기금 2억 원을 기부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21년 6월에도 동아대 발전기금 2억 원을 기부했으며 지금까지 모교에 기부한 금액은 12억 원 이상이다.

제19~20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2015~2021년) 등을 역임한 신 회장은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 기업인으로 1978년 세운철강(주)을 창립하고 이후 철강 외길을 걸어오며 2021년 기준 9,900억 원대 매출을 올린 데 이어 올해는 1조 원대 매출을 바라보고 있다.

특히 사회공헌에도 앞장서며 모교 동아대를 비롯해 사회와 교육, 스포츠, 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100억 원 이상을 기부, 지역 발전에 앞장선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2015), 대한민국 창조경제리더 대상(2013), 자랑스러운 시민상 대상(2012), 부산시민산업대상(2009)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왼쪽부터) 신정택 세운철강(주) 회장, 이해우 총장

신 회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교의 변함없는 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기부한다"며 "후배들이 학교의 교육혁신 정책에 따라 잘 적응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박수곤 송우산업 회장·양재생 은산해운항공 회장, 모교 발전기금 1억 원씩 기부

박수곤 송우산업(주) 회장과 양재생 은산해운항공(주) 회장이 학교 발전기금 1억 원씩을 각각 기부했다.

동아대 경영학과 출신인 박 회장은 지난 1998년 자동차 및 일반산업용 고무호스 선진화를 선도하는 송우산업(주)을 설립, 중견기업으로 키워냈으며 지속적인 R&D 투자와 제품 국산화, 친환경적인 자동차 공정 개발 등으로 동탑산업훈장(2015)을 수상했다.

'포워딩(forwarding) 업계의 전설'로 불리는 양 회장은 지난 1993년 은산해운항공(주)을 설립, 석탑산업훈장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한국물류대상 국토해양부장관상, 대한민국 해양대상, 바다의 날 산업포장 등을 받았다.



(왼쪽부터) 양재생 은산해운항공(주) 회장, 이해우 총장, 박수곤 송우산업(주) 회장

### 오낭자 석좌교수, 전시회 작품 판매액 학교 발전기금 기부

오낭자 현대미술학과 석좌교수가 지난해 11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부민캠퍼스 석당미술관에서 열린 '오낭자(吳浪子) 채색화전'의 미술작품 판매 수익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전달했다.

홍익대 동양화과 출신인 오 교수는 故 천경자 화백의 1호 수제자로 여든 나이에도 왕성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964년 <만추>로 처음 국전에서 수상했으며 1982년 국전 추천작가에 임명됐고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작가를 역임했다. 지난 60여 년간 일관되게 현대 화조영모도를 그려왔으며, 특유의 서정적이고 환상적인 그림을 통해 현실과 비현실을 가로지르는 작품 세계를 발전시켜왔다. 1988년부터 20년 동안 동아대 미술학과 교수를 지낸 뒤 명예교수에 이어 2022년 2학기부터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오 교수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동아대는 지난 시절 나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마음의 고향이었다"며 "지역과 함께 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명문 동아대 발전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다"고 말했다.



(왼쪽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오낭자 교수 / 오낭자 교수 채색화전 2022 도록 / 오낭자 채색화전의 도슨트 해설을 듣고 있는 참석자들 / 석당미술관에서 열린 '오낭자 채색화전' 개막식 참석자들

DONATION NEWS

**의과대학 1기 동문회 홈커밍데이 개최  
미화 1만 달러 및 한화 1억 3,000만 원 전달**

의대 1기 동문회가 지난해 11월 졸업 3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에서 단체(1기 동문회)와 개인(James Lee, 강태훈 1기, 김시호 1기, 한재정 6기) 기부를 통해 마련된 미화 1만 달러 및 1억 3,000만 원을 발전기금으로 학교에 전달했다. 동아대 의과대학은 첫 의사를 배출한 지 30년(1985년 신설, 1991년 2월 제1회 졸업식)이 된 지난해 '지나온 30년, 새로운 30년' 슬로건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동아의대 후원 캠페인'과 의과대학 소식지 정기 발간, 유튜브 홍보물 제작 등 의과대학 발전상을 알리고 동문 및 학부모 등과 소통하며 구덕캠퍼스를 지역 대표 초일류 메디컬 캠퍼스로 조성해 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왼쪽부터) 강태훈 강태훈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 이해우 총장, 양창호 1기 동문회장

**한호중 유카로오토모빌(주) 회장  
경영대학원 발전기금 1억 원 기부**

한호중 유카로오토모빌(주) 회장이 지난 1월 경영대학원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했다. 지난 1988년 동아대 잠사학과(蠶事學科)를 졸업한 한 회장은 경영대학원 MBA(경영학석사) 55기로 원우회장직을 맡아 활발히 활동했으며, 경영대학 고액 릴레이 기부자 모임인 '디챔버(D-Chamber)'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한 회장은 "경영대학원에서 좋은 교수님들의 강의를 많이 들었다. 배움을 토대로 사업을 더 잘 운영해 지속적으로 학교에 기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총장님이 모교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동문들도 잘 알고 있다. 모교가 잘 되길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박현태 대외국제처장, 이해우 총장, 한호중 회장, 김완중 경영대학원장

**MBA 54기 졸업생 일동  
학교 발전기금 2,000만 원 전달**

2022년 8월 26일 열린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원장 김완중) 2021학년도 후기 석사(MBA) 학위수여식에서 이날 학위를 받은 제54기 졸업생들이 학교 발전기금 2,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원장을 비롯해 정석봉 석사동문회장, 동문회 관계자, 졸업생 등이 참석했으며 수여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됐다. 김 원장은 "지난 2년 반 동안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불철주야 불살랐던 열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학위도를 쓰신 졸업생들이 자랑스럽다. 여러분 모두가 일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겸비한 존경받는 경영인으로 성장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완중 경영대학원장, 김현묵 원우회장



**(사)동아비즈니스포럼  
학교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사)동아비즈니스포럼이 제60회 정기포럼을 개최하고 학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지난해 11월 18일 부산 롯데호텔 3층 펠룸에서 열린 정기포럼에는 임준택 (사)동아비즈니스포럼 회장, 강세호 수석부회장, 신정택 동아대 총동문회장, 이해우 동아대 총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동아대 동문 기업을 중심의 동아비즈니스포럼은 동남권 최대 규모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동남권 대표 비즈니스단체로 2017년 사단법인으로 전환했다. 최근 제15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중앙회장으로 선출된 임 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포럼이 더 활발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왼쪽부터) 이해우 총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노중현 부경수산(주) 대표  
경영대학원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노중현 부경수산(주) 대표가 경영대학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부경수산(주)는 기업체와 학교급식, 관공서 등에 각종 냉동 수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강소기업이다. 노 대표는 AMP 총동문회 33대 회장, (사)동아비즈니스포럼 4대 회장직을 역임하고 현재 AMP 회장단 협의회장직을 맡고 있다. 지난해 11월 28일 부민캠퍼스 경영대학원장실에서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노 대표는 "동아대와 맺은 소중한 인연으로 가족들에게도 좋은 일이 많이 생겨 지인들에게 동아대와 동아대병원을 추천하고 있다"며 애정을 드러내는 한편 "역대 회장단(동경회) 협의회장들이 기부하는 전통을 이어 나가고 싶다"는 희망을 드러냈다.



(왼쪽부터) 박현태 대외국제처장, 노중현 부경수산(주) 대표, 김완중 경영대학원장, 김상진 경영대학원 부원장

**성석동 수근종합건설(주) 회장  
경영대학원 장학기금 3억 원 조성 협약**

성석동 수근종합건설(주) 회장이 장학기금 3억 원을 조성, 해마다 경영대학원 장학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동아대와 체결했다. 장학금은 졸업대상자 중 성적우수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성 회장은 또한 경영대학 학부생 '스마트 강의실' 리모델링 사업에도 기부했다. 성 회장은 "동아대 경영대학원 행정지원실의 도움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어 고맙다. 학교와 인연을 이어 나가며 기부할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수근종합건설(주)는 부산-경남에 기반을 둔 건설사로 아파트 '봄여름가을겨울'의 시공사로 유명하다.



(왼쪽부터) 이해우 총장, 성석동 수근종합건설(주) 회장, 성광원 수근종합건설(주) 상무

DONATION NEWS



두산베이스 지명 야구부 백승우 선수  
발전기금 500만 원 기부

백승우(체육학과) 야구부 선수가 대학 발전기금 500만 원을 기부했다. 최고 시속 143km의 패스트볼과 다양한 변화구를 갖춰 부산고 야구부 시절부터 주목받은 백승우 선수는 동아대 진학 후 기량이 상승했고, 2023 프로야구 구단 신인 7차 라운드에서 두산 베어스 지명을 받았다. 백 선수는 “지난 4년간 학교의 아낌없는 지원 덕에 걱정 없이 야구를 할 수 있었다. 훌륭한 감독님과 코치님을 믿고 열심히 훈련해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후배들을 격려했다.



(왼쪽부터) 우진희 스포츠단장(예술체육대학장), 백승우 선수, 이재현 야구부 감독

동아대 음악학과  
사하경찰서와 학교폭력예방캠페인송 제작

동아대 음악학과가 사하경찰서와 협업으로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송 ‘네 곁엔 우리가 있어’를 제작했다. 박지용 음악학과 교수가 음악감독, 황선호 학생이 작곡·편곡, 정미선 졸업생이 보컬, 사하경찰서 여성청소년계가 작사를 맡았다. 황선호 학생과 정미선 졸업생은 “경찰서 관계자 분들과 호흡이 잘 맞아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고 말했고 박 교수는 “무거운 주제지만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학생들의 재능과 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고 말했다.



캠페인송 작업 회의 중인 박지용 음악학과 교수, 음악학과 학생들, 사하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들

동아대 홍보대사 예그리나  
동문 후배들에게 장학금 전달

예그리나 동문들이 재학생 홍보대사 3명에게 각각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홍보대사 동문 장학금은 과거 예그리나로 활동했던 동문 10여 명이 매달 1만 원씩을 적립하여 기금을 조성해왔고 지난 2021년부터 지급됐다. 특히 올해는 장학금 기부에 동참한 동문이 더 늘어 의미를 더했다. 장학금을 기부한 김신광 동문은 “더 많은 후배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만들고 싶다”는 목표를,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더 책임감을 느끼면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왼쪽부터) 장학생 이아림(26기), 윤지우(27기), 기부자 대표 김신광 동문, 임영민(27기)

전기공학과 봉사 동아리 ‘한빛’  
골목길 태양광 LED 센서 설치

전기공학과 학생 20여 명으로 구성된 동아 재능기부봉사단 9기 ‘한빛’ 동아리가 서부경찰서와 협업, 2022년에 부산시 26개소에 50여 개의 태양광 LED를 설치했다. 한빛은 2021년에도 영도경찰서, 영선 2동 주민센터와 협업해 72곳에 90여 개의 태양광 LED를 설치, ‘소통 고리 대학생 자원봉사 공모전’ 최우수상과 영도경찰서 및 서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바 있다. 한빛 대표 송재원(전기공학과 4) 학생은 “부산 전역으로 봉사활동을 넓혀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지면 좋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골목길 태양광 LED 센서 설치 봉사활동을 펼친 제9기 재능기부봉사단 ‘한빛’ 학생들

기부로 밝아지는  
동아대학교의 미래

지난 시간 동아대는 교육을 혁신하고  
인재양성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동아의 미래 발전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이란

동아대학교 발전과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의 발전기금을 후원해주는 모범업소를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으로 선정합니다.

**가입대상** 동아대학교를 사랑하고 발전을 기원하는 모든 업소 및 사업체

가입 시 혜택

- 후원의 집 명판 부착
- 매년 명절 쌀·감 등 소정의 기념품 발송
- 기부금 영수증 발급
- 동아대학교 달력 및 소식지 발송



발전기금 기부현황 (2022년 7월~2022년 12월)

단체

- (주)대동석재
- 동아의대1기 동문회
- (주)메디파워
- 법무법인 예인
- (주)벤인코
- (주)비에프씨씨
- (주)비티엑스모빌리티
- (주)사랑모아금융서비스

- 산업공학과
- (주)새누리어
- 송우산업(주)
-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
- 식품영양학과 총동문회
- (주)신도시엔지니어링
- (주)에듀피플스
- (주)유디엠

- 유카로오토모빌(주)
- 은산해운항공(주)
- 은하수합동법률사무소
- 조은이비인후과
- (주)엔지코퍼레이션
- (주)진학사
- (주)태영건설
- 황기호정형외과의원

후원의 집

- 강남스마일안과의원
- 구덕레포츠
- 금호횃집
- 누리마을감자탕
- 대공삼계탕
- 대물림 청송집
- 대훈기획
- 더진국 하단점
- 도리원
- 동경초밥
- 동원장수촌
- 밝은눈안과의원
- 본가 사하점
- 산정

- 상록광고기획
- 선미집
- 성일숯불갈비
- 소담
- 소중한이치과의원
- 송월타울
- 송이아구점
- 아이시티안과의원
- 어심초밥
- (주)엠컴퓨터아카데미
- 영의루
- (주)올복스 부산점
- 이가한우
- 이모식당

- 장시영살롱드뷰티
- 진선
- 초원복국
- 초유플라워
- 카플러스
- 공볼 동아대점
- 투썸플레이스 동아대점
- 파리바게뜨 부민점
- 플로르델리아
- 하단돼지국밥
- 화국반점
- 흥부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

필수수집정보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부자 예우를 위한 필수 정보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약정금액, 납입방법, 기부목적	
선택수집정보	학교와의 관계에 따른 맞춤형 예우 용도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학교와의 관계	
	학교 소식지 발송, 감사선물 발송, 행사 안내 등 기부자 예우 용도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성명, 연락처, 주소	
제3자 제공정보	제공 받는 자 : 금융결제원(자동이체 납입 시)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성명,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결제일자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준영구 (기부자의 자료 삭제 요청 시 삭제 가능)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필수수집정보 수집에 미동의 할 경우 익명의 기부자로 등록되어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부내역 조회가 불가하며 기부자 예우서비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정방법**

약정서 작성 후 사진으로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TALK 카카오톡 실행

상단 검색버튼

동아대학교 발전기금 검색 후 채널추가

QR 친구추가 QR

문의 051-200-6012  
팩스 051-200-6015  
이메일 fund@dau.ac.kr

## 동아대학교 발전기금 약정서

• 기본정보

성명(기관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관계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동문 ( 입학연도 / 학과·과정 )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 약정정보

약정금액	매월 ( ) 만 원
기탁용도	<input type="checkbox"/> 학교에 위임 <input type="checkbox"/> 학과에 기부 ( ) 학과)

• 자동이체 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출금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20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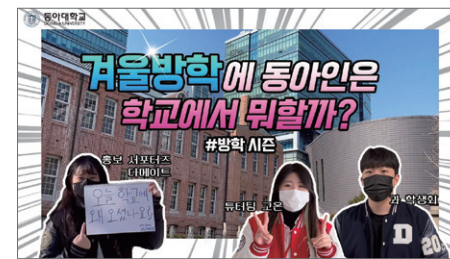
기부권유자 : \_\_\_\_\_

약정자 : \_\_\_\_\_ (인)

# SPOTLIGHT Dong-A S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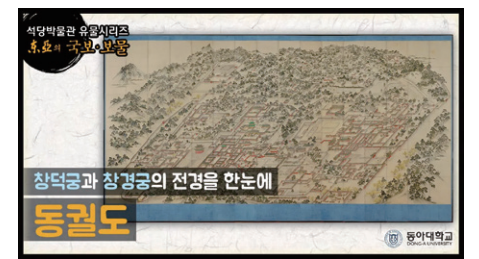
동아인이 울고 웃고 고민했던 바로 그 순간&이슈를 소개합니다.

### 겨울방학



#동아의방학 #겨울방학 #방학에도\_열일하는\_동아인 #계절학기 #스터디 #대학생의일상 #대학생활 #갓생 #공부자극 #자기개발 #2023준비 #동아인의\_2023을\_응원합니다

### 석당박물관 소장 보물 동결도



#석당박물관\_소장품 #온라인관람가능 #무려국보 #시공초월\_창덕궁과창경궁\_한눈에\_보기 #입체동양화 #고궁의멋 #조선시대에도\_2층\_건물 #압도적인\_사이즈 #세밀한\_선과\_색의\_조화

### 요즘 20대들의 현실적인 고민 TOP4



#20대 #초중반 #현실고민 #동아대생 #성장통 #화이팅 #진로 #취업 #학점관리 #스펙 #취업스타그램 #고민보다go

### 학위수여식



#2022학년도 #학위수여식 #졸업축하해요 #사회로의첫걸음 #응원합니다 #동아대학교 #동아대 #DON GAUNIV #Congratulation

### 백투더수능



#수능셀 #레전드셀 #수능연기 #수능화이팅 #수능응원 #동아대학교 #동아대 #동아의보이는라디오 #동아외공감하는 #동감 #동아인의이야기

instagram.com/donga\_univ

youtube.com/c/dongauniversity1946

facebook.com/dongauniv

blog.naver.com/donga\_pr\_bot